

보도자료

이 자료는 배포시부터 취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 : 2024년 11월 28일 통화정책방향 관련 참고자료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하향 조정하게 된 배경”

(붙임 참조)

문의처: 통화정책국 정책총괄팀 팀장 김병국, 차장 최연교

Tel: (02) 759-4461, 4066 Fax: 759-4485 E-mail: mpdept@bok.or.kr

공보관: Tel: (02) 759-4028, 4016

“한국은행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bok.or.k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한국은행
BANK OF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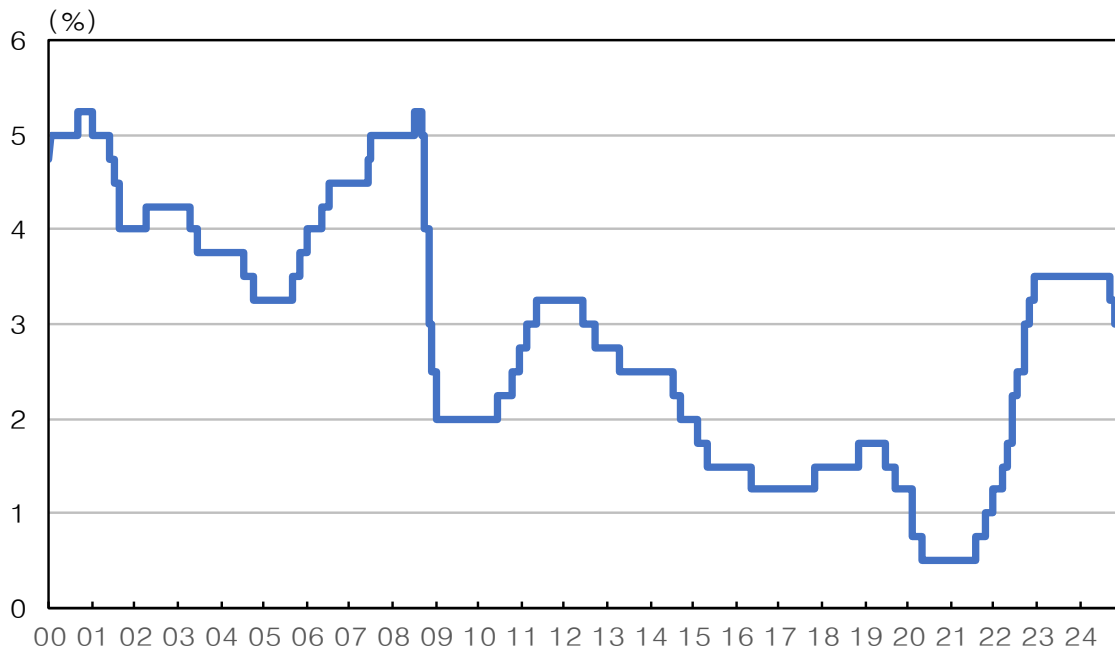
(붙임)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하향 조정하게 된 배경

[정책결정]

-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3.25% 수준에서 3.00%로 하향 조정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었지만, 물가상승률의 안정세와 가계부채의 둔화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성장의 하방압력이 증대되었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하여 경기의 하방리스크를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한국은행 기준금리¹⁾ 추이



주: 1) 2008년 2월까지의 콜금리 목표

[대외경제 여건]

- 세계경제는 미국 신정부의 경제정책 향방에 따른 경기 및 인플레이션의 불확실성이 증대되었다.

세계경제지표

		2022	2023	23.4/4	24.1/4	2/4	3/4	24.8월	9월	10월
미국	GDP성장률 ¹⁾ (전기비연율, %)	2.5	2.9	3.2	1.6	3.0	2.8	-	-	-
	소매 판매 ¹⁾ (전기비, %)	8.9	3.4	0.7	-0.1	0.5	1.3	-0.1	0.8	0.4
	산업 생산 ¹⁾ (전기비, %)	3.4	0.2	-0.4	-0.4	0.6	-0.2	0.5	-0.5	-0.3
	ISM제조업 ²⁾ (기준=50)	53.5	47.1	46.9	49.1	48.8	47.1	47.2	47.2	46.5
	실업률 ¹⁾ (%)	3.6	3.6	3.8	3.8	4.0	4.2	4.2	4.1	4.1
	비농기취업자수증감 ¹⁾ (전기비, 만명)	623.5	353.1	61.7	77.1	57.7	42.1	7.8	22.3	1.2
	소비자물가상승률(전년동기비, %)	8.0	4.1	3.2	3.2	3.2	2.6	2.5	2.4	2.6
	근원물가상승률(전년동기비, %)	6.2	4.8	4.0	3.8	3.4	3.2	3.2	3.3	3.3
유로	GDP성장률 ¹⁾ (전기비연율, %)	3.5	0.4	0.2	1.2	0.8	1.5	-	-	-
	소매 판매 ¹⁾ (전기비, %)	1.1	-1.9	0.3	0.2	0.3	0.9	1.1	0.5	..
	산업 생산 ¹⁾ (전기비, %)	2.2	-2.2	0.0	-1.0	-0.3	-0.3	1.5	-2.0	..
	제조업PMI ²⁾ (기준=50)	52.1	45.0	43.9	46.4	46.3	45.5	45.8	45.0	46.0
	실업률 ¹⁾ (%)	6.8	6.6	6.5	6.5	6.5	6.4	6.3	6.3	..
	수출 ¹⁾³⁾ (전기비, %)	18.2	-0.8	0.6	0.9	0.3	-0.8	-0.3	0.4	..
	소비자물가상승률(전년동기비, %)	8.4	5.4	2.7	2.6	2.5	2.2	2.2	1.7	2.0
	근원물가상승률(전년동기비, %)	4.0	5.0	3.7	3.1	2.8	2.8	2.8	2.7	2.7
일본	GDP성장률 ¹⁾ (전기비연율, %)	1.2	1.7	0.4	-2.4	2.2	0.9	-	-	-
	소매 판매 ¹⁾ (전기비, %)	2.6	5.5	-0.9	0.0	1.8	1.1	1.0	-2.2	..
	산업 생산 ¹⁾ (전기비, %)	-0.1	-1.3	1.1	-5.2	2.7	-0.3	-3.3	1.6	..
	제조업PMI ²⁾ (기준=50)	52.1	49.0	48.3	47.8	50.0	49.6	49.8	49.7	49.2
	수출 ¹⁾ (전기비, %)	18.2	2.7	3.0	-1.4	2.7	0.2	-3.6	1.9	-0.7
	소비자물가상승률(전년동기비, %)	2.5	3.2	2.9	2.5	2.7	2.8	3.0	2.5	2.3
	근원물가상승률(전년동기비, %)	0.1	2.5	2.7	2.4	1.9	1.7	1.7	1.7	1.6
중국	GDP성장률(전년동기비, %)	3.0	5.2	5.2	5.3	4.7	4.6	-	-	-
	소매 판매(전년동기비, %)	-0.2	7.2	8.3	4.7	2.6	2.7	2.1	3.2	4.8
	산업 생산(전년동기비, %)	3.6	4.6	6.0	6.1	5.9	5.0	4.5	5.4	5.3
	제조업PMI ²⁾ (기준=50)	49.1	49.9	49.3	49.7	49.8	49.4	49.1	49.8	50.1
	수출(전년동기비, %)	5.6	-4.7	-1.3	1.1	5.6	6.0	8.7	2.4	12.7
	소비자물가상승률(전년동기비, %)	2.0	0.2	-0.3	0.0	0.3	0.5	0.6	0.4	0.3
	생산자물가상승률(전년동기비, %)	4.2	-3.0	-2.8	-2.7	-1.6	-1.8	-1.8	-2.8	-2.9
글로벌	교역량증가율 ⁴⁾ (전년동기비, %)	3.7	-2.0	-1.6	-0.5	0.5	1.8	2.1	2.5	..

주: 1) 계절조정 기준
3) 역내거래 제외

2) 연·분기수치는 기간중 월평균
4) 상품수입량 기준

□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주요국의 정책금리 인하 기조가 이어졌지만 미 장기 국채금리가 큰 폭 상승하고 달러화도 상당폭 강세를 나타내었다.

□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미국 신정부의 경제정책 추진양상,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제금융지표

		2023	7월	8월	9월	10.10일	10월	11.27일
국채금리 ¹⁾ (%)	미국(2년물)	4.25	4.26	3.92	3.64	3.96	4.17	4.23
	미국(10년물)	3.88	4.03	3.90	3.78	4.06	4.28	4.26
	독일(10년물)	2.02	2.30	2.30	2.12	2.26	2.39	2.16
	영국(10년물)	3.54	3.97	4.02	4.00	4.21	4.45	4.29
환율 ¹⁾	달러인덱스	101.3	104.1	101.7	100.8	103.0	104.0	106.1
	신흥시장국 ²⁾	48.1	45.9	45.9	46.2	45.5	44.8	43.5
	엔/달러	141.0	150.0	146.2	143.6	148.6	152.0	151.1
	위안/달러	7.11	7.22	7.09	7.01	7.07	7.12	7.25
주가 ¹⁾³⁾	전세계	727.0	814.2	833.7	851.8	848.2	832.3	858.3
	선진국	3,169.2	3,571.6	3,661.2	3,723.0	3,710.7	3,647.1	3,786.0
	신흥시장국	1,023.7	1,084.8	1,099.9	1,170.9	1,157.0	1,119.5	1,087.6
VIX ¹⁾		12.5	16.4	15.0	16.7	20.9	23.2	14.1
CDS프리미엄 ¹⁾ (bp)	신흥시장국	167.5	169.3	162.0	162.5	163.7	168.1	158.2
	중국	59.6	63.2	57.3	59.6	62.6	64.0	64.8
	한국	27.2	34.5	31.5	31.3	32.0	33.8	34.1
유가 ¹⁾⁴⁾ (달러/배럴)	WTI	71.7	77.9	73.6	68.2	75.9	69.3	68.7
	Brent	77.6	81.5	80.0	72.9	79.2	73.3	73.9
	Dubai	76.5	79.5	77.1	72.5	77.2	71.7	72.1
신흥국 글로벌펀드자금 유입 (기간중, 억달러)		57.8	242.2	133.1	319.7	420.7 ⁵⁾	229.7	-174.8 ⁶⁾

주: 1) 기말 기준
4) 현물 기준

2) JPMorgan 신흥국지수 기준
5) 24.10.3~24.10.9일 기준

3) MSCI 기준
6) 24.10.31~24.11.20일 기준

[실물경기]

□ 국내경제는 내수 회복세가 완만한 가운데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성장 흐름이 약화되었다. 고용은 실업률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취업자수 증가규모는 점차 둔화되는 모습이다. 앞으로도 국내경제는 소비가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가겠지만 수출 증가세는 주력 업종에서의 경쟁 심화,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으로 당초 예상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금년 및 내년 성장률이 각각 지난 8월 전망치(2.4% 및 2.1%)를 하회하는 2.2% 및 1.9%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러한 성장경로에는 통상환경 변화 및 IT 수출 흐름, 내수 회복 속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다.

실물경제지표

(%, p, 만명)

	2022	2023	23.4/4	24.1/4	2/4	3/4	24.8월	9월	10월 ⁶⁾
GDP 성장률 ¹⁾	2.7	1.4	0.5	1.3	-0.2	0.1	-	-	-
(민간소비)	4.2	1.8	0.4	0.7	-0.2	0.5	-	-	-
(설비투자)	-0.3	1.1	2.8	-2.0	-1.2	6.9	-	-	-
(건설투자)	-3.5	1.5	-3.8	3.3	-1.7	-2.8	-	-	-
소매판매액지수 ²⁾	-0.3	-1.5	0.4	-0.5	-0.8	-0.5	1.7	-0.4	..
설비투자지수 ²⁾	2.5	-4.9	5.0	-3.8	-0.2	10.1	-5.1	8.4	..
건설기성액 ²⁾	2.8	7.3	-2.5	4.9	-6.2	-4.2	-1.9	-0.1	..
수출(통관) ³⁾	6.1	-7.5	5.7	8.0	10.1	10.4	10.9	7.1	4.6
- 일평균 ³⁾	(6.3)	(-6.8)	(9.6)	(8.9)	(10.9)	(10.4)	(13.2)	(12.5)	(-0.2)
제조업생산지수 ²⁾	0.9	-2.6	2.2	-0.5	1.5	-1.2	4.4	-0.1	..
서비스업생산지수 ²⁾	7.0	3.2	0.3	0.8	-0.3	0.3	0.3	-0.7	..
소비자심리지수 ⁴⁾	95.7	97.4	98.4	101.4	100.0	101.5	100.8	100.0	101.7 [100.7]
기업경기실사지수 ⁴⁾⁵⁾	81	69	70	71	75	71	71	69	69 [68]
취업자수 증감 ³⁾⁴⁾	81.6	32.7	30.3	29.4	14.6	14.6	12.3	14.4	8.3
고용률(계절조정계열)	62.1	62.6	62.7	62.9	62.7	62.7	62.7	62.8	62.7
실업률(계절조정계열)	2.9	2.7	2.8	2.8	2.8	2.5	2.4	2.5	2.7

주: 1) 계절조정, 전기비 2) 계절조정, 전기비,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기준
 3) 전년동기비 4) 연·분기수치는 기간중 월평균 5) 제조업 업황실적 BSI 기준
 6) []내는 24.11월

[물 가]

- 국내 물가는 안정세를 지속하였다. 10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석유류가 격 하락에 따라 일시적으로 크게 낮아져 1.3%를 기록하였으며 근원물가 상승률(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도 1.8%로 둔화되었다.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전월과 같은 수준(2.8%)을 유지하였다. 앞으로 물가상승률은 환율 상승이 상방압력으로 작용하겠지만 국제유가 하락, 낮은 수요압력 등으로 안정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금년 및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각각 2.3%, 1.9%로 지난 전망치(2.5%, 2.1%)를 하회할 전망이다. 근원물가 상승률은 금년은 지난 전망에 부합하는 2.2%로, 내년은 지난 전망(2.0%)보다 소폭 낮은 1.9%로 예상된다. 향후 물가경로는 환율 및 국제유가 움직임, 국내외 경기 흐름, 공공요금 조정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물가지표

(전년동기비, %)

	2022	2023	23.4/4	24.1/4	2/4	3/4	24.8월	9월	10월 ⁴⁾
소비자물가 ¹⁾	5.1	3.6	3.4	3.0	2.7	2.1	2.0	1.6	1.3
	-	-	(0.7)	(0.7)	(0.3)	(0.4)	(0.4)	(0.1)	(0.0)
▪ 농축수산물	3.8	3.1	7.7	10.4	8.6	3.4	2.4	2.3	1.2
▪ 공업제품	6.9	2.6	2.7	2.0	2.1	1.4	1.4	0.3	-0.3
(석유류)	22.2	-11.1	-3.6	-1.8	2.9	0.0	0.1	-7.6	-10.9
(석유류 제외)	4.7	4.8	3.7	2.5	2.0	1.6	1.6	1.5	1.3
▪ 전기·수도·가스	12.6	20.2	10.1	5.4	3.1	2.4	3.3	3.0	3.0
▪ 서비스	3.7	3.3	2.8	2.5	2.2	2.2	2.3	2.2	2.1
(공공서비스)	0.8	1.3	2.0	2.1	2.2	1.5	1.4	1.3	0.9
(개인서비스)	5.4	4.8	4.0	3.3	2.8	3.0	3.0	2.9	2.9
근원인플레이션율									
▪ 식료품·에너지 제외	3.6	3.4	2.9	2.5	2.2	2.1	2.1	2.0	1.8
(관리물가 ²⁾ 제외)	4.3	3.9	3.1	2.5	2.1	2.1	2.1	2.0	1.9
▪ 농산물·석유류 제외	4.1	4.0	3.3	2.6	2.1	2.0	1.9	1.8	1.7
기대인플레이션율 ³⁾	3.7	3.5	3.3	3.1	3.1	2.9	2.9	2.8	2.8 [2.8]

주: 1) ()내는 전기비

2) 시장에서의 수요·공급보다는 정부의 직·간접적 영향을 크게 받는 가격으로, 공공서비스, 전기·수도·가스, 담배, 급식 등의 가격을 포함

3)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일반인 기준), 연·분기수치는 기간중 월평균

4) []내는 24.11월

[금융안정]

- 금융·외환시장에서는 국고채금리가 큰 폭 상승한 미 국채금리와 차별화된 움직임을 보이며 하락하였고 원/달러 환율은 미 달러화 강세에 영향받아 상당폭 상승하였다. 주가는 주요 기업의 실적 전망 둔화 등으로 하락하였다.

국내금융지표

	2023	7월	8월	9월	10.10일	10월	11.27일
국고채금리 ¹⁾²⁾ (3년물, %)	3.15	3.00	2.95	2.81	2.96	2.94	2.74
국고채금리 ¹⁾²⁾ (10년물, %)	3.18	3.06	3.09	2.99	3.09	3.10	2.88
통안증권금리 ¹⁾²⁾ (91일물, %)	3.48	3.35	3.26	3.16	3.13	3.06	3.04
CP금리 ¹⁾²⁾ (91일물, %)	4.32	3.92	3.62	3.62	3.62	3.54	3.56
회사채금리 ¹⁾³⁾ (3년, AA-, %)	3.89	3.46	3.51	3.40	3.54	3.50	3.32
(3년, BBB-, %)	10.33	9.49	9.43	9.26	9.41	9.34	9.13
KOSPI ¹⁾	2,655.3	2,770.7	2,674.3	2,593.3	2,599.2	2,556.2	2,503.1
원/달러 환율 ¹⁾	1,288.0	1,376.5	1,336.0	1,307.8	1,350.2	1,379.9	1,397.0
원/100엔 환율 ¹⁾	912.3	900.9	921.2	922.5	905.4	903.2	918.1
외국인 주식순매수(조원)	4.0	-0.1	-2.9	-7.7	-0.5 ⁴⁾	-4.7	-3.1 ⁵⁾

주: 1) 기말기준 2) 최종호가수익률 기준 3) 민간신용평가기관 4사 평균 기준
4) 24.10.1~24.10.10일 기준 5) 24.11.1~24.11.27일 기준

- 주택가격은 수도권에서는 상승폭이 축소되고 지방에서는 하락세가 이어졌다. 가계대출은 계절적 요인 등으로 증가규모가 소폭 확대되었지만 거시건전성정책의 영향이 이어지면서 주택관련대출을 중심으로 당분간 둔화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판단된다.

가계·기업대출 및 주택가격 지표

	2022	2023	23.4/4	24.1/4	2/4	3/4	8월	9월	10월
은행 기업대출 증감(조원)	104.8	77.4	9.5	25.0	24.1	19.4	7.2	4.3	8.1
▪ 대기업	37.6	31.9	3.8	12.6	8.3	7.1	1.9	0.8	2.9
▪ 중소기업	67.2	45.5	5.7	12.4	15.9	12.2	5.3	3.5	5.3
은행 가계대출 증감 ¹⁾ (조원)	-2.6	36.9	15.2	3.5	16.9	20.2	9.2	5.6	3.9
▪ 주택담보대출 ¹⁾	20.0	51.6	16.6	10.1	16.4	19.8	8.2	6.1	3.6
▪ 기타대출 ²⁾	-22.9	-14.5	-1.3	-6.4	0.5	0.5	1.1	-0.5	0.3
주택 매매가격 ³⁾ (%)	-4.7	-3.6	0.1	-0.4	0.0	0.6	0.2	0.2	0.1
▪ 수도권 ³⁾⁴⁾	-6.5	-3.6	0.2	-0.4	0.2	1.3	0.5	0.4	0.2
(서울) ³⁾	-4.8	-2.0	0.3	-0.2	0.6	2.1	0.8	0.5	0.3
▪ 지방 ³⁾⁵⁾	-3.0	-3.5	0.0	-0.4	-0.2	-0.2	0.0	0.0	-0.1

- 주: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론, 전세자금대출, 이주비·중도금대출 등 주택담보로 취급되지 않은 주택관련대출 포함
2) 일반신용대출, 신용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대출), 상업용부동산(상가·오피스텔 등) 담보대출, 기타대출(예·적금담보대출, 주식담보대출 등) 등으로 구성
3) 전기비, 연·분기는 전기말월대비, 한국부동산원 지수 기준
4) 서울, 인천, 경기 5) 수도권 제외

[향후 정책 방향]

-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국내경제는 물가상승률이 안정되는 가운데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가계부채 둔화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환율이 높은 변동성을 나타낼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향후 통화정책은 금리인하가 물가와 성장, 가계부채와 환율 등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변수 간 상충관계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앞으로의 인하 속도 등을 결정해 나갈 것이다.